

12) 씨름

민속전래의 경기인 씨름은 명절을 전후한 서민들의 각종 대회 개최로 이어져왔다. 1927년 대한씨름협회가 발족되면서 종래의 민속적인 유희에서 탈피하여, 한국인의 체력 향상과 한국 씨름의 현대경기로서 발전하였다.

순천의 씨름은 1964년 목포에서 열렸던 전남 시·군대항 단체전에서 이봉길·오진기·김영철 등이 출전하여 우승을 차지하였다. 이듬해 광주에서 열린 전남 시·군대항 단체전에서 정지봉이 중량급에서, 김영철이 경량급에서 우승을 차지했다. 그후 1967년과 1971년 광주·여수에서 열린 시·군대항전에서 우승한 후로는 사실상 침체상태에 있었다. 1970년 중반에 쌍암중과 1970년대 후반의 월전중학교에서 씨름을 양성하였다.

1983년 순천 교육장기쟁탈 씨름대회가 개최되면서 씨름 열기가 다시 살아나 성동초등학교 김정진(현 삼정기공 대표이사) 교사의 노력과 평소 씨름을 즐기던 김덕수, 김승룡(현 순천씨름협회 전무이사)이 협조하여 그해 8월에 씨름부를 정식 창단하였다. 이때 선수는 4·5·6학년 20여 명으로 구성되었으며 이들은 이수중, 순천상고로 이어지는 막강한 전력을 갖추게 된다. 이때 선수는 김성환·최선흠·김종용·김성진·최상기·이병진·용호철·장길상·박웅·한영민·김종우·김하성·최지웅·이종민·백승일 등이다. 특히 최지웅(일양약품), 백승일(청구)이 프로무대에서 활약하고 있으며 백승일은 천하장사의 경력을 가지고 있다.

한편 1988년 김정진 교사가 성남초등학교로 자리를 옮기면서 다시 그해 4월 씨름부를 창단하여 초등학교부는 성동·성남에서 팀을 육성하고 있으며, 이수중·순천상고·순천공고에서 전남대표 선수를 육성하고 있다.